

## 인트로

안녕하세요. 이창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강의를 6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의 개관과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합니다.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시간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 다니엘서는?

신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에 계시록이 있지만, 구약에서도 계시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만큼 어려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1~6장, 7~12장으로 나뉩니다.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난해한 묵시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묵시는 뭘까요? ‘숨은 것을 드러낸다’, ‘덮개를 벗긴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라면 묵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다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게 공부해보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하려면 알아야할 다섯 제국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어 애굽을 무너뜨린 앗수르 제국입니다.

앗수르는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은 세계 가운데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듯이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제국이 세계를 차지합니다. 이 다섯 제국! 앗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성경 전체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다보면 입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의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 찾기’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한 제국이 떠오르고 또 한 제국이 사라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분명하고도 특별한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며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한 백성들을 여러 가지 징벌로 다루십니다. 그중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징벌은 선택하신 민족을 다른 나라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만드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 가지 않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끌려갔습니다. 가정 먼저 혈통이 우수한 왕, 고위직의 후손, 사회의 지식층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불잡혀 가기 8년 전입니다. 귀족의 혈통을 지닌 다니엘도 이 그룹에 속해 8년에 앞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먼저 끌려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시련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함부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지도 않죠. 우리의 신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참고의 대상이지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평가는 우리의 가치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 땅에 보내신 이유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눠게 됩니다.

첫 번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영화를 누리던 앗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이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비롯한 어린 소년들의 신앙을 통해 이방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들이 종결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일을 겪었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이방 땅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당시의 아픔이 지금의 유익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라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 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어떻게 기근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가족들은 어떻게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이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다시 말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메시야를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곧 역사다

다니엘서 1장 1절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말씀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 볼 때, 이때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풀라산 왕의 통치시기입니다. 성경 기자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기록한 이유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왕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뉘면서 생긴 나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답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우상문화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지고, 점점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

1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개혁을 했던 아버지 요시야, 그리고 막내 동생 여호아하스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앗수르를 치러가던 애굽왕 느고에 맛서다 므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네 아들 중 막내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와 정 반대로 짧은 기간에도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3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애굽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애굽의 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아김을 유다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

호야김으로 고칩니다. 사실상 애굽의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 된것이죠. 여호야김은 애굽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으며, 그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애굽이 유다를 지배하던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을 향해 “이러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 민족은 곧 바벨론에 포로로 끌들려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선포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런 예레미야의 질책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아무래도 불편했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여호야김은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성경을 태우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난폭한 그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왕궁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호야김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불태워진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왕궁은 곧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 다니엘서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열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민족만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겨 갑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절의 첫 구절을 주목해보세요.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는 일은 결코 그 나라의 힘이 강하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 뜻을 정한 주님의 자녀들

다니엘서 1~6장은 다섯 개의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 가운데 바벨론의 인재가 될 만한 자질이 보이는 몇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죠. 그런데 그중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총책임자인 환관장이 찾아와 다음과 부탁합니다.

자신이 왕을 두려워하며,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 앞에서 내가 위태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간을 주어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을 할테니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누구의 얼굴빛이 좋은지 한 번 지켜봐달라 합니다.

다니엘의 이 제안은 단순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기에 어쩌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뜻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처한 고난의 자리를 한 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올라서면 누군가는 내려와야만 하는 냉정한 궁궐의 현실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가정은 마트에 가기보다는 어플을 이용하여 장을 많이 봅니다. 일단 장바구니에 살만한 것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런 다음 목록을 쭈욱 보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보면 더 나은 것을 위해 그렇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뜻을 정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지금 궁궐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은 정말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 할 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당시 바벨론 시대에는 왕의 음식을 차릴 때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바쳐졌던 우상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다니엘 1: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붙잡아 온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개명시켰습니다. 원래 다니엘 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이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이 얼마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늘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벨드사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다니엘)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의 주 이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신앙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 다니엘 1:11~12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성경주석가 중에 랑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의 ‘청하오니’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성품과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의 지적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무례히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을까요? 무례함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취했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다니엘 1: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졌다고 오해하며 안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해처럼 빛나게 하신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2: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권력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무게감과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장차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염려와 고민으로 뒤척이다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린 겁니다. 꿈을 꾼 뒤 뭘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술객 등을 불러 모읍니다. 시국이 불안하고 정권이 안정되지 않을수록 이런 무속 신앙을 찾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불안과 염려까지 어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러 모은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면 상을 주지만,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말을 건냅니다. 다니엘은 내면이 잘 훈련되어 있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데 여기서 ‘명철’은 ‘침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에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아침에 명철함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철저히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 훈련을 철저하게 해온 그에게 한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신상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불들린 자,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내면이 잘 훈련된 명철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잠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얼마 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냅니다.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발을 쳐 부서뜨리니 그 형체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신상이 있었는데 각 부위가 다릅니다. 이 각 부위는 각기 다른 나라를 뜻합니다.

먼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바벨론을 표현하기 ‘황금의 도시’라 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문화와 웅장함을 보면 황금이라 비유될 만큼 찬란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벨론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강의 물을 끌어오는 기술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성의 규모도 대단이 컸습니다. 네겹의 성벽을 이루며, 성 밖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바벨론 도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은 금이 많았습니다. 22,500kg이나 되는 황금 상과 식탁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유적뿐만 아니라 금도 많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도 다음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에게 망하게 되는 데요.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 신상의 두팔과 가슴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패배하게 됩니다. 확실히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메대와 페르시아는 은이 많고, 이들은 역사상 최초로 은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금을 걷어들이

고 시장경제가 활발해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약 200년동안 지속됩니다.

은 다음으로는 놋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25만 군대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4만 7천명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메대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인 그리스 헬라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스 헬라제국은 구리를 잘 제련하여 놋으로된 투구와 방패, 검 등을 잘 사용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다음으로 철의 나라 로마제국이 등장합니다. 신상의 종아리 부분인 로마제국은 철과 같은 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재패합니다. 이들을 표현하기 ‘로마사람들은 마치 무장할 준비를 하고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로마의 군사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로마의 군단제도는 오늘날의 군대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다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짓습니다. 하지만 철의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북방의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이 철의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진흙과 쇠로 섞여있는 여러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어떤 나라들은 철과 같이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약소국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유럽이 통일 되는가 싶었지만 결국 이들도 실패합니다.

느부갓네살 꿈 마지막에는 왕이 손대지한 돌이 나와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인간의 제국들은 돌에 의해 깨어지게 됩니다. 이 돌은 인간이 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상을 깨뜨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후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말씀해주십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강대국이었던 로마제국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 땅의 나라들도 보면 힘이 있던 시기가 있고 힘이 약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종 승리자가 누구임을 알려주십니다.

꿈에 큰 신상이 있었는데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발을 쳐 부서뜨립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최후 승

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며 가구며 헤어스타일도 유행에 따라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